오늘의 날씨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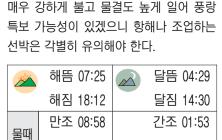
2월 8일 월요일 음 12월 27일 (4물)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10%

주간	예보	〈문의 1	과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3/8℃
모레		구름맑음	4/13℃



15:15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

은 2~3℃, 낮 최고기온은 5~9℃로 전망된

다. 제주도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과심	매우높음		
신급	메ㅜ표금		

20:23



월드뉴스

53년 만에 지갑 찾은 미 91살 할아버지

신분증 등 고스란히 보관돼

미국의 91살 할아버지가 30대 시절 남극에서 분실했던 지갑을 53년 만 에 되찾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 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거주 하는 폴 그리셤은 미국의 남극 연구 기지에서 잃어버렸던 지갑을 최근 우 편물로 받았다.

그리셤은 1960년대 후반 미 해군 소속 기상학자로 남극 기지에 파견됐 다가 지갑을 분실했다.

그가 되찾은 지갑 속에는 세월의 무게로 빛이 바랜 해군 신분증과 운 전 면허증, 화생방 공격 시 대응 요령 을 담은 카드와 맥주 배급 확인 카드.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 아내에게 보 낸 우편환 영수증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다.

극의 맥머도 기지에서 건물 철거 작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3년 만에 되찾은 지갑.

업을 하던 중 사물함 뒤편에서 발견

기지 관계자는 수년간 그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가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스티븐 디카토에게 지갑을 보냈다.

디카토가 퇴역 군인을 지원하는 비영 리 단체 도움으로 분실된 해군 신분 증명 팔찌를 원주인에게 찾아줬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리셤은 "(지갑을 받고 난 뒤) 난 그저 깜짝 놀랐다"며 많은 사람의 도 그리셤의 지갑은 지난 2014년 남 움 덕분에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 리 일 보 제주의대표신문		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진 선 희 교육문화체육부장

미술관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금 줄처럼 형광색 줄이 걸려 방문객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코로나19 휴 관'이라는 팻말이 그 이유를 말해줬 다. 얼마 전 찾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제주추사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휴관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대로 라면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 강 화대책 추가 연장"에 따른 것으로 2 월 8일이면 휴관 기간이 53일째에 이르고, 예고된 2월 14일까지 채우 면 59일 동안 문을 닫게 된다. 1월부 터는 야외 추사유배지를 개방하고

53일째 휴관 중인 어느 공립미술관

있지만 실내 전시실은 감연 확산과 예방을 취지로 2개월 가까이 휴관 중인 실정이다.

1종 미술관인 제주추사관은 제주 지역 7개 공립미술관 중 하나지만 유독 휴관이 길어지고 있다. 관리 주 체인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측은 자체 결정으로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는 데, 제주도립미술관 등 6개 공립미술 관과 운영에 차이가 난다. 다른 공립 미술관은 사전예약제로 시간대별 입 장객 수를 최대 30명까지 두는 등 시 설 규모나 동선에 맞게 입장 인원을 조정해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어서 다. 이는 제주추사관 학예직이 한동 안 공석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스 마트 박물관·미술관 공모에도 유일 하게 참여하지 않은 상황까지 더해 져 제주도 미술관 정책의 부재를 드 러내는 사례로 읽힌다.

제주는 1987년 전국 최초의 '시립 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이 개관하는

등 일찍이 공립미술관의 시대를 열 었다. 하지만 공립미술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은 미약해 보인다.

2020년 1월 기준 문체부가 펴낸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담긴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를 보자. 공립미술관 1개관당 평균 학예 인력 수는 5.47명이지만 제주는 대 부분 1~2명이고 제주도립미술관(제 주현대미술관 포함)이 6명으로 평균 을 간신히 웃돌았다. 소장자료 수는 평균 986점인데, 제주는 그 수치를 뛰어넘는 공립미술관이 없었다. 2021년 제주도 본예산에서도 공립미 술관 소장품 구입비가 깎이거나 천 차만별인 점을 보면 소장자료 수의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평균지표와 별개로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횟수를 보더라도 제주 지역 공립미술관은 0회를 나타냈다. 학예직 역량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

고 있는 걸 보여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만이 아니 라 저지. 대정에 각각 흩어진 공립미 술관이 지역과 밀착된다면 읍·면 문 화공간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보완 할 수 있다. 공립 문화기반시설이 주 도적으로 나서 사설 공간들과 협업 하고 콘텐츠를 나누는 일이 확대된 다면 말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억원을 투입해 올해 처음 민간 문 화예술공간의 기획 발굴과 운영 지 원을 취지로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이른 바 '문화예술섬' 정책이 '자기 사람' 만 챙기는 식이어선 안된다. 공립미 술관의 시스템을 다지면서 그 저변 을 넓혀가는 방식에도 무게를 실어 야 할 것이다. 5개 도립예술단 활성 화를 위해 제주도가 소매를 걷어붙 였듯, 7개 공립미술관도 소장자료, 전시와 프로그램, 인력 운용의 큰 그 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시민 중심 문화도시, 서귀포시를 꿈꾸며



김 태 엽 서귀포시장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난해는 서귀포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사업을 추진한 첫 해였다. 하지만 코로 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시민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비대면 위주의 사 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신축년에 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성과를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서귀포시의 문화도시조성 사업은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 포'를 비전으로 해, 시민 주도로 마을 에 잠재해 있는 고유한 문화와 다양성 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시민 여러 분이 참여를 넘어서 스스로 문화를 만 들어나가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많 은 제약 속에 추진되긴 했지만, 지난 해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추진 가능성 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다. 올해는 그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 올려 구체화해 나가겠다. 문화도시센 터와 문화예술단체, 협력기관,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더 공고히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아울러 서귀포의 자연과 문화원형을 담은 고유의 문화도시브랜드 확립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과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세인 웰니스 관광에도 연결돼 확산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쓰겠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마음과 삶, 경제 까지 모두 힘들게 하고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상에 서 더욱 더 다양한 문화를 만나야 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화로 이야기하 고, 문화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 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겠다.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행복 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문화가 일 상이 되는,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 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고 늘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문 경 진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장

폭설이 극성스러웠던 겨울이 지나고 절기상 입춘이 됐지만 계속되는 한파 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택에서 생 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3대 난방 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 사용량이 급증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낮은 겨울보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만나는 시점 에 오히려 화재의 발생이 증가한다.

최근 예로 지난달 15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삼도동 단독주택에서 전기히 터 취급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고, 21 일 또한 외도동 주택에서 히터로 인 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화재사고가 잠깐의 내길 바란다.

부주의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 다. 이러한 화재와 인명피해를 막기위 한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법으로 전 기장판은 사용 전 파손되거나 마모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35~37℃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며, 사용 후 또는 외출 시 에 전원을 꺼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기 열선은 열선을 옷가 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말아야 하며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지정된 연료를 적당량만 사용해야 하며, 불 티가 비산돼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으므로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서 사용 해야 한다.

난방용품은 우리에게 따듯함을 주 지만 관심과 주의를 소홀히 할 때 한 순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해 2021 신축 년의 시작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